

# 古代 三國 · 統一新羅의 匠人

이 영 희\*

- I. 머리말
- II. 工藝와 匠人의 概念
- III. 古代 三國 · 統一新羅의 匠人
-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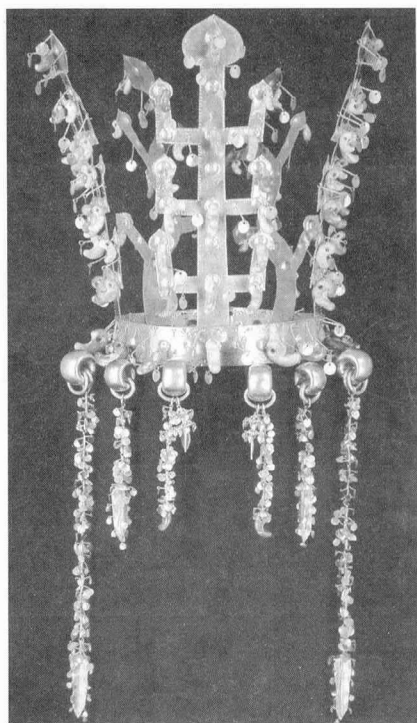
## I. 머리말

한국미술사에서 匠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工藝는 미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인류문화의 진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 조각, 건축에 비해 아름다움(美)과 함께 실용성(用)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공예품에 내포된 사상, 조형미, 작가에 대한 고찰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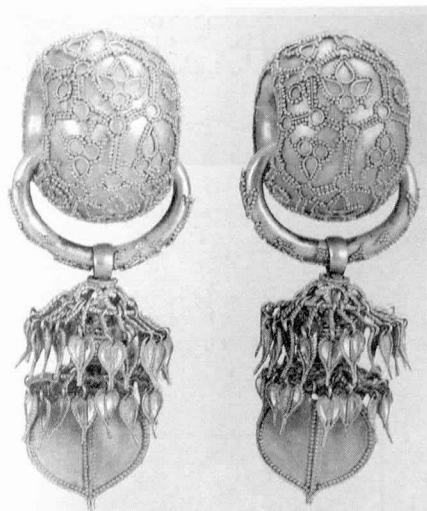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예품을 제작함에 있어 장인은 주관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음을 중시하므로 작가의 개성보다는 전통이 강조된다. 공예의 여러 가지 특성에 '비개인성', 즉 '익명성'이 포함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작가의 개인

---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도 1 황남대총북분 출토 금관,  
신라, 높이 27.5cm, 국립경주박물관



도 2 경주 보문동부부총 출토 금제태환이식,  
신라, 길이 8.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 경주 계림로30호분 출토 토우장식장경호,  
신라, 높이 34cm,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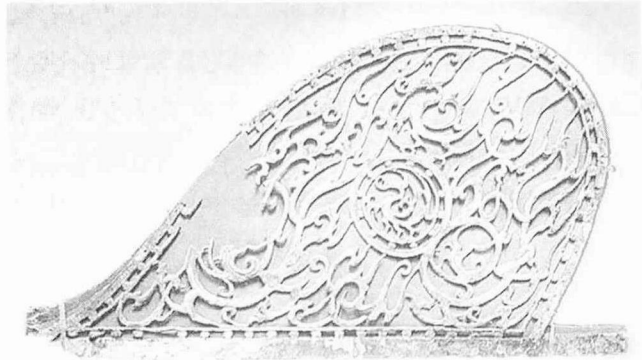
성은 다른 장르에 비해 극히 희박하다. 더구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누가'라는 '개인성'보다는 어떤 '집단'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현대적인 의미인 '작가론'과 달리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존하는 한국미술품 중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공예품이 다수 존재하며 도1-6, 이들은 전통적인 요소와 선진문화와의 교섭, 장인의 기술에 의한 결과물이므로 장인의 존재를 중시하지 않을 수는 없다.<sup>1</sup>

도 4 진파리 1호분 출토  
금동투각용봉문관.  
고구려, 길이 24.7cm

도 5 부여 능산리 출토 금동대향로.  
백제, 높이 61.8cm, 국립부여박물관

도 6 성덕대왕신종.  
통일신라 771년, 높이 3.33m,  
국립경주박물관



<sup>1</sup> 한국공예사의 한 부분으로 고대 이래 工匠制度에 관한 검토는 林永周, 『韓國古代工匠考(1)』, 『문화재』 25, (문화재관리국, 1992), pp.60-72가 유일하다. 또한 승려장인의 예로 삼을 수 있는 『三國遺事』 良志使錫條에 나오는 良志에 대해서는 주로 조각가로서의 양지의 작품과 출신배경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다. 문명대, 「양지와 그의 작품론」, 『불교미술』 1, (1973), pp.1-24; 강우방, 「신양지론」, 『미술자료』 47(1991), pp.1-26; 장충식, 「석장사지출토 유물과 석양지의 조각유풍」, 『신라문화』 3·4(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pp.87-118; 문명대, 「신라대조각장 양지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미술사학연구』 232호, (한국미술사학회, 2001), pp.5-19.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고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공예품 중에서 '匠人'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나오고 장인의 이름, 또는 소속집단을 밝힐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梵鐘의 명문기록과 鑄鐘에 관련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장인(집단)의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소수의 공예품의 조영기록으로 삼국과 통일신라의 장인(집단)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임을 전제로 하면서 먼저 '匠人'이란 명칭이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공예와 장인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 문헌에 기록된 국가조직을 통해 장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미약한 부분을 다소나마 보충하고자 한다.<sup>2</sup>

## II. 工藝와 匠人의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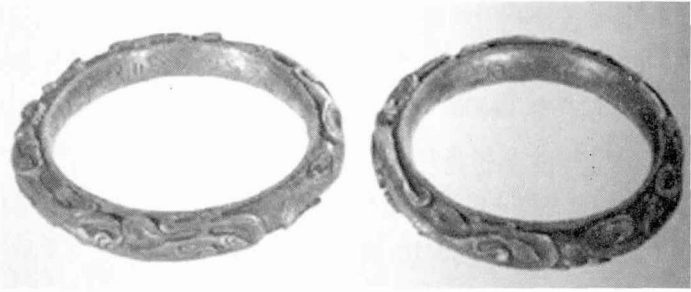
匠人の 현대적 의미는 실용공예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술가와 구분되는 직공(Workman)을 일컫으며,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業(家業, 生業)으로 평생을 이 일에 종사한다고 정의된다. 이러한 장인의 개념은 근세이후 정의된 공예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이후 조형예술은 Art와 Crafts로 양분되며, 순수미술(Fine Art)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술가(Artist)라 하고, 공예(Crafts)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인, 공인(Craftsman)이라고 정의하였다.<sup>3</sup> 이는 Art와 Crafts가 모두 技藝의 영역에 속하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문학, 음악,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모든 藝能이 Art(Crafts)였으며 예능에 종사하는 사람을 누구나 장인(Artsman, Craftsman)이라 한 고대의 개념과 확연히 구별된다.

<sup>2</sup> 본 연구는 장인에 관한 기존의 사회, 경제사적 연구성과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일반사에서의 장인의 연구는 골품제사회의 연구 방법으로 수공업자(匠人)의 신분에 대한 연구가 주축을 이루었으며(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개조사, 1933; 이기백,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사경 관여자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83, 1979, pp.134-139; 이종욱, 「남산신성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지방통치체계」, 『역사학보』 64, 1974),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수공업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 수공업자(匠人)의 사회 경제적 위치와 역할, 지위변동 등의 고찰이 있어왔다(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1988;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서신원, 1996).

<sup>3</sup> 1988년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 영국의 시인, 공예가, 사회주의자)나 콕덴 샌더슨(Cobden-Sandersn: 1840-1922, 영국의 인쇄업자)이 처음으로 'The Art and Crafts Exhibition Society'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공예를 예술에서 구별하였다. 윌리엄 모리스는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술공예운동이란 산업화의 발달로 수공업이 퇴보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믿고 수공업의 부활을 꾀했던 운동이다.

도7 무녕왕릉 출토 은제팔찌.  
 팔찌 내면 명문, 백제, 520년.  
 지름 8cm, 국립공주박물관



중국의 경우는 성곽의 조영, 도읍과 사직종묘의 건설을 담당하는 것을 百工이라 하고 당나라 이전에는 工이라 하였다.<sup>4</sup>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의하면 “工은 장인바치를 말한다. 즉 器物을 만드는 사람이다. 또한 공은 마음을 교묘하게 하고 손을 수고롭게 하여 기물을 만드는 자를 말하며 장은 百工을 통칭하는 말이다. 工匠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음은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라고 공장을 정의하고 있다.<sup>5</sup>

그렇다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장인을 경국대전에서와 같이 기물을 만드는 사람, 근세 이후 정의된 실용공예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을까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미술품에서 만든 사람을 ‘장인’이라 칭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삼국시

<sup>4</sup> 『周禮』卷第十一, “冬官考工記 第六 國有六職 百工與居一焉 百工 司空事官之屬 於天地四時之職 亦處其一也 司空掌營城廓 建都邑 立社稷宗廟 造宮室車服器械 監百工者 唐虞已上曰其工”, 『四部叢刊』初編經部 十二卷(『周禮』, 上海書店, 1989).

<sup>5</sup> 『經國大典』卷六, 工典, 工匠條(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동방미디어주식회사, 1986).

대 공예품 중 제작지를 밝힌 예는 武寧王陵 출토 은제팔찌 도7가 유일하다. 왕비의 왼쪽 팔에 끼고 있었던 팔찌는 한 쌍의 용이 역동적으로 용트림하는 모습으로 부조된 형태이며, 팔찌의 안쪽 면에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520년에 대夫人(왕비)을 위해 多利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리는 백제시대 금제장신구를 제작한 장인임은 분명하나 다리와 같은 사람을 무엇으로 불렀는지는 명문으로 확인할 수 없다.

匠人の 명칭은 삼국시대 축성에 관한 금석문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진흥왕 12년(551)에 축성한 명활산성비문에 波日이라는 관등을 가진 匠人 比智休와 下干支, 一伐, 波日의 관직을 가진 工人 抽□, □叱□, □□利로 기록되어 있다. 금석문에 나타난 工人과 匠人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은 어렵지만 축성에 참여한 기술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匠人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음은 주목된다.<sup>6</sup>

〈예 1-1〉

明活山城築城碑(551, 진흥왕 12년): 匠人·工人

辛未年十一月中作城也 上人邏頭本波部 伊皮□利吉之 郡中上人烏大谷□智支下干支

匠人比智休波日 并工人抽□下干支徒作受長四步五尺一寸 □叱□一伐徒作受長四步

五尺一寸 □□利波日徒作受長四步五尺一寸 合高十步長十四步三尺三寸 …<sup>7</sup>

선덕여왕 14년 황룡사9층목탑의 조영기록에서는 탑을 조영한 사람을 工匠이라 하며, 大匠과 小匠의 구별이 보이며, 줄여서 匠이라고 하였다.

〈예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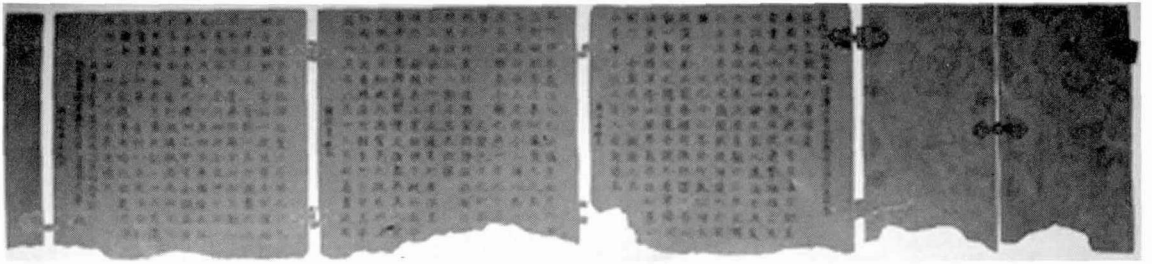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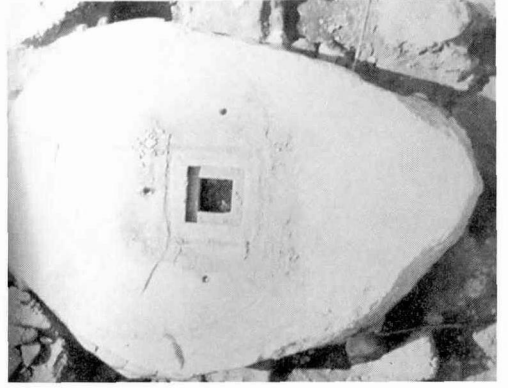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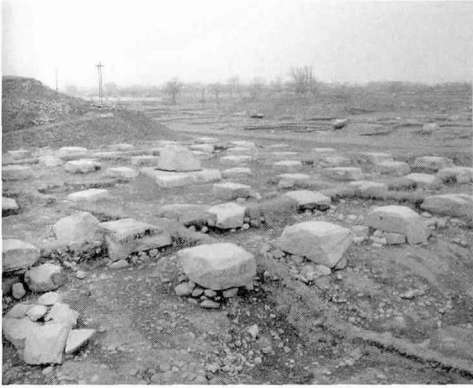
皇龍寺九層木塔(645, 선덕왕 14년) 도8: 工匠, 匠, 大匠, 小匠

…貞觀十七年癸卯十六日, 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而還國 以建塔之事聞於上 善德王

議於群臣 群臣曰 請工匠於百濟 然後方可 乃以寶帛請於百濟 匠名阿非知 受命而來

6 공인은 공사책임량을 할당받아 일을 추진하는 기술적 책임자이며, 장인은 세 사람의 공인이 맡은 지역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박방룡, 「명활산성작성비의 검토」, 『미술자료』 41, 국립중앙박물관, 1988, p.74)과 공인은 재지사회의 유력자로서 직접 受作距離를 부여받는 기술적 책임자이며, 장인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上人邏頭와 지방의 郡中上人을 보좌하고 그들의 기술적 자문에 응했던 존재로 해석하기도 한다(박남수, 앞의 책, 1996, p.143).

7 박방룡, 앞의 논문(1988), pp.57-79.



도 8 황룡사목탑지, 탑 심초석 방형사리공, 금동사리내함(찰주본기 22.5×23.4cm), 국립경주박물관

經營木石 伊干龍春(一云 龍樹) 幹蠱 率小匠二百人 初立刹柱之日 匠夢本國百濟滅亡  
之狀 匠內心疑停手...<sup>8</sup>

…乃 命監軍伊干龍樹 大匠□齋□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鐫字僧聰慧<sup>9</sup>

탑을 조영하는 사람을 뜻하는 工匠(대장, 소장)은 통일신라시대에도 '大匠'<sup>10</sup>과 함께 '匠'으로도 확인된다. 황복사3층석탑에서 출토한 사리함의 명문에 '匠季生闕溫'이라 하여 탑을 만든 사람을 '匠'이라 칭하였다. '匠'은 '工匠'의 줄임말로 工匠과 匠은 같은 개념이라 생각된다.

<sup>8</sup>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皇龍寺九層塔條.

<sup>9</sup> 「신라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 제1판 내면(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일지사, 1987, p.152).

<sup>10</sup> 「해인사묘길상탑기」 '大匠僧蘭交' (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170).



도9 황복사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의함,  
합뚜경 명문, 통일신라, 높이 21.8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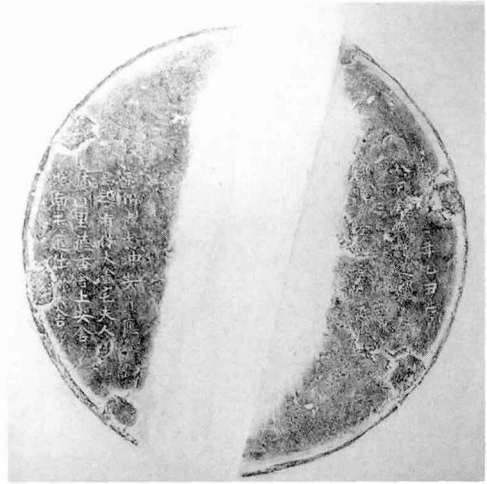
〈예 2-1〉

皇福寺三層石塔(706, 성덕왕 5년) 도9: 匠

…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 昇天所以神陸太后 孝照大王奉爲宗 厝聖靈禪院伽藍  
建立三層石塔…匠季生闕溫<sup>11</sup>

통일신라시대에는 불상과 범종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 匠人, 匠, 工匠이라 하였다. 상원사종은 照南毛匠仕口大舍, 황룡사종은 匠人里上宅下典, 분황사약사동상은 匠人本彼部强古乃末이라 하였다.

<sup>11</sup> 「황복사삼층석탑 금동방형사리의함명문」(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장엄』).



도 10 상원사종, 천관의 명문 탁본, 통일신라, 725년, 높이 1.67m, 상원사

<예 2-2>

上院寺銅鐘(725, 성덕왕 24년) 도10: 匠

開元十三年乙丑三月 八日 鐘成記之 … 且越有休大舍毛夫人 休道里德香舍上安舍  
照南毛匠仕口大舍<sup>12</sup>

<예 2-3>

皇龍寺鍾(754, 경덕왕 13년): 匠人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鍾 … 施主孝貞伊干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sup>13</sup>

<sup>12</sup> 『上院寺鍾記』(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552).

<sup>13</sup>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皇龍寺鍾 · 芬皇寺藥師 · 奉德寺鍾條.



〈예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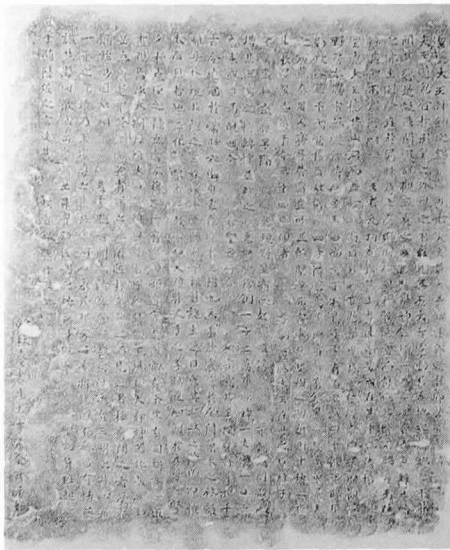
芬皇寺藥師銅像(755, 경덕왕 14년): 匠人  
 … 又明年乙未 鑄芬皇藥師銅像 重三十萬六千七百  
 斤 匠人本彼部強古乃未…<sup>14</sup>

〈예 2-5〉

聖德大王神鍾(771, 혜공왕 7년) 도11: 工徒, 工匠  
 … 又捨黃銅一十二萬斤 爲先考聖德王 欲鑄巨鐘一  
 口 未就而崩 其子惠恭大王乾運  
 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 乃克成之 安於奉  
 德寺…<sup>15</sup>

聖德大王神鍾之銘 … 爾其有司辦事 工匠盡模 … 大

도 11 성덕대왕신종, 종신 좌우명문 탁본,  
 통일신라, 771년, 높이 3.33m, 국립경주박물관



<sup>14</sup> 주 13과 동일

<sup>15</sup> 주 13과 동일

歷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

鑄鐘大博士大奈麻朴從鎰 次博士奈麻朴賓奈 奈麻朴韓味 大舍朴負缶<sup>16</sup>

또한 단속사신행선사탑비에는 신행선사의 부도와 영정을 조영하기 위하여 명장을 초청하였다고 적고 있다. 名은 匠을 꾸며주는 말로 애장왕 2년(801)에 조영된 鑿藏寺阿彌陀佛像에서도 확인된다.<sup>17</sup>

〈예 2-6〉

斷俗寺神行禪師 影幀(813, 헌덕왕 5년): (名)匠

元和八年歲次癸巳九月庚戌朔九日戊午建 … 是以招名匠 畫神影 造浮圖 存舍利燒戒…<sup>18</sup>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의 문헌기록에 장인에 대한 개념규정은 없으며, 미술품의 조영에 관한 기록에서 만든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匠, 工匠, 匠人, 大匠, 小匠, 工(徒) 등이 보인다. 匠人은 工匠, 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현대적 의미의 장르 구분 없이 불탑(목탑, 석탑), 선사탑, 불상, 범종, 영정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통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삼국시대 공예의 개념은 금속이나 나무, 돌과 같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예가 건축·회화·조각과 구별되고, 장인은 실용공예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현대적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工藝가 만든다(꾸미고 장식한다)는 의미의 工과 기술을 뜻하는 藝가 결합된 용어로, 藝란 고대에는 농사짓고 나무를 심는 것이나 재능, 지혜, 학문 기술을 의미하여 오늘날 개념보다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6 「성덕대왕신종명」(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p.552-555).

17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鑿藏寺彌陀殿 “…乃捨六衣之盛服 罄九府之貯財 召彼名匠 敎造彌陀像一軀 并造神衆以安之…”.

18 「단속사신행선사비」(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189).

표 1 미술품과 조영자 명칭

명칭	예	연대/시대	장르
匠人	〈1-1〉 명활산성축성비	진흥왕12(551)/삼국시대	건축-축성
	〈2-3〉 황룡사종	경덕왕13(754)/통일신라	공예-범종
	〈2-4〉 분황사약사동상	경덕왕14(755)/통일신라	조각-불상
匠(大匠, 小匠, 名匠)	〈1-2〉 황룡사목탑	선덕왕14(645)/삼국시대	건축-목탑
	〈2-1〉 황복사석탑	효소왕1(692)/통일신라	건축-석탑
	〈2-2〉 상원사종	성덕왕24(725)/통일신라	공예-범종
	〈2-6〉 단속사신행선사탑·영정	현덕왕5(813)/통일신라	건축-부도 회화-영정
工匠	〈1-2〉 황룡사목탑	선덕왕14(645)/삼국시대	건축-목탑
	〈2-5〉 성덕대왕신종	혜공왕7(771)/통일신라	공예-범종
工徒	〈2-5〉 성덕대왕신종	혜공왕7(771)/통일신라	공예-범종

### III. 古代三國·統一新羅의 匠人

#### 1. 工藝品과 匠人

현존하는 삼국시대 공예품 중에서 장인의 이름이 기록된 예는 무녕왕릉 출토 왕비의 팔찌를 제작한 다리가 유일하며, 공예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다면 황룡사9층목탑의 조영에 참여한 아버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표2) 참조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무녕왕릉에서 출토한 은제팔찌의 명문기록으로는 제작자 이름만 알 수 있을 뿐 다리와 같은 사람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는지를 전혀 밝힐 수 없다. 다만 일본 法隆寺釋迦三尊像을 제작한 止利를 多利와 같은 가계로 보는 의견을 중시한다면 금공기술자로서의 다리의 실체가 조금은 분명해질 것이다.<sup>19</sup>

<sup>19</sup> 止利 일가(祖父 司馬達等, 父 多須那)를 귀화중국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나 고구려 내지 백제계의 皮革工人-鞍作-출신의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朴文源, 「止利の本國について」,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1970, pp.193-214; 강우방, 「금동일월식삼산관사유상」,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0, pp.98-99; 문명대, 「백제

황룡사는 진흥왕14년(533)에 창건한 이래 4대왕 9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공된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며, 9층의 목탑은 선덕여왕 14년에 조영되었으나, 모두 소실되고 지금은 사지에 답지만 현존한다<sup>도8</sup>. 그러나 9층의 목탑을 조영한 내력이 목탑지에서 출토된 사리구인 금동방형사리함(「刹柱本記」)과 문헌(『三國遺事』)에 상세히 적혀 있어 삼국시대 장인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황룡사의 목탑은 국왕이 발원하고 伊干 龍樹가 최고관리자로 공사를 총괄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백제의 장인 아버가 200인의 소장을 거느리고 하였다고 한다.〈예1-2〉 참조

삼국시대에는 阿非와 같이 탑을 조영하는 사람을 工匠이라 하였으며, 당시 工匠에는 大匠과 小匠의 위계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大匠은 중국의 행정관료인 匠作大匠과 동일하지 않고 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장은 건물을 설계하고 고도의 기량을 몸에 지니고 소장인 일반 기술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지도적 기술자로 해석된다.<sup>20</sup>

阿非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工匠(大匠)이었음은 신라의 호국사찰인 황룡사의 탑을 조영하기 위하여 예물(寶帛)로 초청받아 왔다는 사실로도 입증되며, 이는 장인의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인의 위상은 장인의 교류로도 짐작된다.<sup>21</sup> 또한 앞

불상조각의 대외교섭, 『백제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8, pp.133-167). 특히 止利는 마구 등의 공예를 취급하던 工人 집안의 우두머리로 백제공인들이 일본에 파견되던 시절에 건너간 司馬達等の 후예이며 이는 무녕왕릉 팔찌를 제작한 多利와 거의 흡사한 백제식 이름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견해(문명대 위의 논문)와 多利와 止利를 같은 가계로 해석하여 일본으로 간 백제계 鞍作工人들은 금공, 목공, 칠공, 피혁공 등 종합기술자로 처음에는 마구와 무구 등을 만들다가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공예의 장인으로 전환되어 불교공예의 일가를 이루어 止利樣式을 정립하였으며, 일본으로 건너간 기술자 가운데 多利라는 장인의 가족집단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난영, 『백제금속공예의 대외교섭』, 『백제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8, pp.231-233)가 주목된다.

<sup>20</sup> 중국에서의 大匠은 秦代 匠作制度에서 출발하여 漢代에는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수리와 목공작업을 주관하는 관료로서 정착하였고, 隋·唐代에는 토목과 영선 및 공장을 관장하는 행정관료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김동욱, 『한국건축공정사연구』, 지문당, 1993, pp.21-28.

<sup>21</sup> 匠인의 교류는 삼국과 중국, 일본 간의 예로도 매우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三國史記』百濟本紀 第4, 聖王19年(541), “王遣使入梁朝貢兼表請 … 并工匠畫師等 從之”.

『日本書紀』附錄 卷第20, 敏達天皇 6年(577), “冬十一月庚午朔 百濟國王 付遣使大別王等 獻經綸若干卷 … 造佛工 造寺工 六人…”.

『日本書紀』附錄 卷第21, 崇峻天皇 元年(588), “是歲 百濟國遣使 并僧惠總 寺工太良末太 文賈古子 露盤博士將 德白味淳 瓦博士麻奈文奴 陽貴文 凌貴文 昔麻帝彌 畫工白加…”.

『日本書紀』卷22, 厩古天皇 18年(610), “春三月 高麗王貢上僧曇徽法定 曇徽知五經 且能作彩色及紙墨 并造碾磑 蓋造碾磑 始于是時歟”.

표 2 미술품과 장인 목록

미술품명	제작연도	장인명(출처)	현존유무	장인의 유형
武寧王陵出土 銀製腕釧	520(武寧王20)	多利(팔찌내면 음각)	유	官匠?
皇龍寺九層木塔	645(善德王14)	(工匠) 大匠 阿非知 小匠 200人 『三國遺事』·「刹柱本記」	무	官匠?
皇龍寺九層木塔(중수)	872(景文王12)	聰慧, 連全 鑄字僧聰慧 鑄字助博士 連全「刹柱本記」	무	僧匠
黃福寺三層石塔	706(聖德王5)	(匠) 季生, 閔溫(舍利外函銘文)	유	其他
上院寺鍾	725(聖德王24)	(照南毛匠) 仕口(大舍) [鐘銘]	유	私匠·官匠
華嚴經寫經	754-755	紙作人, 經筆師, 經心匠, (景德王13-14) 佛菩薩償筆師, 經題筆師 다수	유	官匠
皇龍寺鍾	755(景德王14)	(匠人) 里上宅下典『三國遺事』	무	私匠·官匠
芬皇寺藥師銅像	755(景德王14)	(匠人) 強固(乃末)『三國遺事』	무	官匠
聖德大王神鍾	771(惠恭王7)	工徒, 工匠(大博士奈麻) 朴從鎰 (次博士奈麻) 朴賓奈(奈麻) 朴韓味 (大舍) 朴負缶『三國遺事』·鐘銘	유	官匠
釜藏寺阿彌陀佛像	801(哀莊王2)	不明: 召彼名匠『三國遺事』·祖碑銘	무	其他
禪林院鍾	804(哀莊王5)	(在伯士 當寺) 覺智師 [鐘銘]	무	僧匠
斷俗寺神行禪師浮圖碑	813(憲德王5)	불명: 招名匠 [碑銘]		僧匠
菁州蓮池寺鍾	833(興德王8)	(成博士) 安海衷(大舍) 衷 大舍 [鐘銘]	무	官匠
竅興寺鍾	856(文聖王18)	(大匠大奈末) 溫衾 [鐘銘]	무	官匠
昌林寺無垢淨塔	855(文聖王17)	不明: 選海內之匠 [塔願記]	무	其他
桐華寺毘盧巖三層石塔	863(景文王3)	(匠) 覺德 [舍利函記]	유	僧匠
鷲棲寺石塔	867(景文王7)	(石匠) 神孥 [舍利函記]	무	僧匠
禪房寺塔	879(憲康王5)	(大伯士) 釋林典 [塔誌石]	무	僧匠
普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884(憲康王10)	(興輪寺僧) 釋賢暢(刻字) [碑銘]	유	僧匠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887(定康王2)	(僧) 奧榮(刻字) [碑銘]	유	僧匠
月光寺圓朗禪師大寶神光塔碑	890(眞聖王4)	(門下僧) 眞胤(等刻字) [碑銘]	무	僧匠
海印寺妙吉祥塔	895(眞聖王9)	匠士 蘭交(大匠), 清裕 副(壯士) 居佛·堅相·具祖 [塔誌石 1] 不明: (偏召) 緇工 [塔誌石 3]	유	僧匠

에서 설명한 공예와 장인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탑의 조영에 참여한 대장과 소장의 공장 체계는 다른 미술품의 조영에도 적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장인의 존재는 고도의 기술로 주도된 금속공예의 정수이며, 불교사상을

구현한 대표적인 조형물인 범종의 명문기록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범종 중에서 最古의 범종이며, 最大·最美의 범종으로 일컬어지는 上院寺鍾과 聖德大王神鍾에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통일신라시대 장인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상원사종은 조선 초 경북 안동의 문루에 걸려 있다가 예종 1년(1469)에 상원사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는 종으로 북형에 용뉴와 음관, 하대와 상대의 견대, 유곽, 당좌, 공양비천상을 두루 갖춘 한국종의 형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이다. 특히 용뉴를 중심으로 좌우에 음각된 명문에는 개원13년 을축(성덕왕 24년, 725) 3월 8일에 만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말미에 “照南匠匠仕□大舍”라 하여 통일신라시대 장인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10</sup>.〈예2-2〉 참조

‘匠’은 ‘宅’의 이체자이므로 진골귀족의 가호로 해석하면,<sup>22</sup> 大舍는 신라 관등 중 12관등이므로 상원사종은 조남택의 工匠인 大舍 ‘仕□’가 만들었다는 뜻이다. 즉, 상원사종을 조영한 ‘仕□’는 조남택에 소속된 개인장인이면서 관등을 가진 장인으로 해석된다. 신라에서는 진골귀족이 각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와 경영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삼았는데 대표적인 진골귀족 가문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35금입택이다. 조남택은 35금입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라 신분제 하에서 최상위에 있던 넓은 범위의 진골가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23</sup>

그러므로 진골귀족 가문에는 각각 개인공방을 운영하면서 장인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귀족의 개인 장인 중에는 관등을 부여받을 정도로 유능한 장인이 실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해석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황룡사종의 주종기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황룡사의 범종은 4m에 이르는 거대한 종이었으며, 성덕대왕신종보다 17년 앞선 시기에 조영

<sup>22</sup> 한국 고대문헌에 나오는 宅의 용례는 (1) 대지를 포함한 가옥을 의미하며 家와 호환해서 사용하거나 (2) 관청 이름으로 사용 (3) 離宮을 의미 (4) 진골귀족의 家號가 있다(이성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pp.45-50).

<sup>23</sup> 『三國遺事』 卷第1, 紀異, 辰韓,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의 기록에서 신라 전성시기를 신라 말기의 헌강왕대(875-886)로 보고 금입택은 중대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삼국유사』에 예기된 금입택은 신라 왕도에 모여 살던 유명한 가문만 기록한데 불과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李基東, 『新羅金入宅考』, 『진단학보』 45, 진단학회, 1978, pp.3-5), 정창원 소장 色氎貼布記(31자의 글이 적힌 삼베가 모전에 실로 꿰매어 있음)의 ‘紫草娘宅’도 대일무역에 관여한 신라 금입택의 하나라고 한다(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게(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1997).

되었음은 『三國遺事』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경덕대왕 천보13 갑오년(754) 관동 2위인 伊干의 孝貞과 그의 부인(三毛夫人)이 시주하였으며, 장인은 里上宅의 下典이며, 높이는 1장 3촌, 두께 9촌, 무게는 497,581근이라 한다.〈예2-3〉 참조

이상택은 신라 수도 경주의 부유한 집 35급입택의 하나로 이상택의 하전이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의 황룡사 주종이라는 국가적인 조영에 참여하였다는 것에서 하전의 신분을 내성의 관직인 하전으로 보는 견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sup>24</sup> 이상택의 하전을 이상택에 소속된 개인 장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상전과 대칭되는 의미로 해석하여 하전을 노비 신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25</sup> 그러나 왕실과 공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성 산하에 있는 壁典과 刺園典에 下典이라는 관직이 배속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sup>26</sup> 下典을 看翁 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 보고 하전을 택에 소속된 집단의 일원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이상택의 하전이 주인인 상전에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내성의 관직인 하전이라면, 금입택의 개인장인(私匠)이면서 관등을 부여받았으며, 개인공방에 사적으로 봉사하면서 국가적인 사업에도 참여하는 양속적인 신분이라 여겨진다.<sup>27</sup> 里上宅의 下典이 황룡사종의 주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금입택과 왕실은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각종 국가적 사업에는 이러한 관계가 자주 활용되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sup>28</sup>

이상택을 비롯한 신라 진골귀족 가문들은 풍부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각각 가정기관을 갖추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방에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개인공방에 소속된 유능한 장인들은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sup>24</sup> 이기동, 앞의 논문(1978), p.5; 김희만, 「신라장인층의 형성과 그 신분」,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3(1992), p.191; 이성시, 앞의 책(1999), p.76.

<sup>25</sup> 하전은 상전에 대칭되는 말로 奴의 뜻이다(이병도 역주, 『三國遺事』, 동국문화사, 1978, p.325). 下典이란 말은 上典에게 예속된 노비를 표시하던 말로서 이상택의 하전은 신분이 천한 노비여서 분황사 약사동상을 주조한 강고처럼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그의 소유자인 상전 이상택의 이름만을 밝힌 것이다(홍희유, 앞의 책, 1989, p.41).

<sup>26</sup> 『三國史記』 卷第39, 雜誌 第8, 職官(中), “... 壁典 看翁一人, 下典四人 刺園典 看翁一人 下典二人...”.

<sup>27</sup> 이성시, 앞의 책(1999), p.76.

<sup>28</sup> 신라 54대 景明王의 妃는 35급입택의 하나인 長沙宅 대존의 딸로 왕실과 신라부호가문의 결혼관계를 알 수 있다(『三國遺事』 王曆, 第五十四 景明王, “朴氏 名昇英 父神德 母資成 妃長沙宅 大尊角干 追封聖僖大王之子...”). 또한 보림사보조선사창성비(884)에 의하면 憲安王은 김언경이 장엄한 寶林寺를 위해 望水·以南 등의宅에 금품을 내도록 명하고 이 절을 내성 소속 관서인 宣敎省에 속하게 하였다(이성시, 앞의 책(1999), pp. 77-78).

다음으로 성덕대왕신종은 국가조직에 소속된 장인(官匠)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이 성덕왕의 명복을 빌어 주종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혜공왕이 완성하였다는 주종의 내력이 鍾腹의 좌우측에 양각된 명문과 함께 『三國遺事』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29</sup>.〈예2-5〉 참조

“혜공왕이 大曆 庚申 12월에 유사에게 명하여 공인의 무리를 모아서 드디어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命有司鳩工徙).” “유사가 일에 힘쓰고 공장들도 본받았다(爾其有司辨事 工匠盡模).”는 기록에서 성덕대왕신종은 국가적인 조영이었으며, 국가조직에 장인을 동원하여 주종을 담당하는 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관사명과 장인의 수 등은 불확실하나 工匠府와 같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장인들이 신종의 조영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을 총감독하는 기술관리가 있었음은 명문기록에서 확인된다. 종의 명문 말미의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鑄鐘大博士大奈麻朴從鑑 次博士奈麻朴賓奈 奈麻朴韓味 大舍朴負缶”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주종대박사와 차박사는 관직이며, 대나마, 나마, 대사는 관등을 가르킨다. 즉 대박사의 벼슬에 대나마(10등급)인 박종일(鑄鐘大博士奈麻朴從鑑)과 차박사의 벼슬에 나마(11등급)인 박빈나(次博士奈麻朴賓奈), 벼슬 없이 나마(11등급)인 박한미(奈麻朴韓味), 역시 벼슬 없이 12등급의 대사인 박부부(大舍朴負缶) 등이 성덕대왕신종의 주조 책임을 맡았음을 적고 있다.

박사라는 벼슬은 신문왕 때 국학과 누각전 등의 관사에 중국식 박사제를 시행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성덕대왕신종의 주종기록은 이러한 박사제도가 장인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으며 경덕왕대를 전후하여 대박사-차박사로 분화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박사 장인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장인(官匠)을 의미하며 대박사와 차박사는 관등의 고하가 아니라 기술의 고하이며, 국학의 박사와 같이 4두품에서 6두품의 신분에 해당되므로 사회적 신분이 높았다.<sup>29</sup> 즉 성덕대왕신종의 주종에 참여한 장인들은 지배계급 출신의 기술관이며, 官匠이다.

국가소속의 장인에는 ‘백사’도 있어 주종사업에 참여하였다. 백사는 박사의 명칭이 사회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음을 따서 사용한 승장의 직급이다. 선림원종(804년)은 통일신라 주종에 참여한 승장의 최초의 예이며,<sup>30</sup> 754년에 조영된 白紙墨字大方廣佛華嚴經跋文에 紙作

<sup>29</sup> 주종박사인 경우 흥덕왕 8년(833)의 靑州蓮池寺鍾(日本 常宮神社소장)에 참여한 박사는 大舍로 관등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靑州蓮池寺鍾「鍾記」, “太和七年三月日 靑州蓮池寺鍾成 … 成博士 安海衷大舍 衷口大舍…”(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p.555-556).

伯士'<sup>31</sup>와 선방사탑(879년)의 '大伯士釋林典'<sup>32</sup>도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

상원사종이나 성덕대왕신종에서는 관장이 주종의 책임을 맡은 것에 반해 9세기 초엽에 조성된 선림원종에서 승장이 참여한 것이 변화이다. 이는 동 시기 승장들이 관장에 버금할 만한 기술을 습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러 유형의 승장들이 불사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sup>33</sup>

## 2. 국가조직과 장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국왕과 궁정귀족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에서 직접 요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청이 국가조직 내에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는 왕궁과 사원건축, 각종 불사, 지배계층이 소요한 각종 물품이 기록과 현존유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통일신라시대 장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조직체계에 대한 조사는 현존하는 미술품의 조영기록만으로 명확하지 않는,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다수의 다양한 공예품은 어느 곳에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는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인과 관련있는 관사로는 고구려의 珠淘省<sup>34</sup>과 백제의 司空部, 신라의 工匠府와 南下所宮이 주목된다. 백제의 관사 중에는 내관의 馬部, 刀部, 木部와 외관의 司軍部, 司空部, 綱部 등에 다수의 장인이 소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담당한다는 사공

30 선림원종은 애장왕 5년(804)에 조영되었으나, 6.25 전쟁 시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파편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선림원종기」, “貞元二十年甲申三月二十三日 當寺鍾成內之 … 鍾成在伯士 當寺 覺智師 …” (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555).

31 이기백, 앞의 논문, 1979, pp.126-140.

32 「禪房寺塔誌石」(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 (1)』, p.162).

33 김사성 산하의 사원성전이 불사의 조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사찰마다 불사를 일으킬 때는 어떤 형태 모든 성전이나 그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승장의 활약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박남수, 「통일신라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동국사학』 28집, pp.35-61; 박남수, 앞의 책(1996), pp.238-245.

34 『三國史記』 卷第40, 雜誌 第9, 職官(下)에 기록된 궁예가 마련한 관직칭호 중에 珠淘省을 “掌造成器物”이라 하므로 현존하는 진파리고분 출토 금동투각용봉문관과 청암리토성 출토 금동투각관과 같은 공예품의 제작과 연관성을 추정해본다.

부를 工作 부분을 담당하다고 넓게 해석한다면 문헌기록에 나오는 寺工, 露盤博士, 瓦博士, 畫工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장인들이 소속되지 않았을까 한다.<sup>35</sup>

신라의 관제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며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집사성 산하에는 兵府, 京城周作典, 成典(사천왕성전, 봉선사성전, 감은사성전, 봉덕사성전, 봉은사성전, 영묘사성전, 영흥사성전), 乘府, 例作府, 船府, 音聲署, 工匠府, 彩典, 漏閣典 등에 다수의 장인이 소속되어 국가의 통치에 필요로 되는 물품의 제조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36</sup>

공장부는 명칭으로 볼 때 장인을 장악 통제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관청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공장부가 관장한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라의 모든 장인들을 통제하였는지는 불확실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집사성 산하의 각 관사는 관사별로 소속된 장인을 통제하였으며, 공장부는 각종 수공업자들을 장악 통제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sup>37</sup>

궁정 관계 일을 담당하는 내성 산하에는 대소관사가 115개 있는데, 이 중에서 물품의 생산과 관계된 관사가 30여 개에 이른다. 관사의 이름과 직능, 기구의 정원 등을 밝힌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sup>38</sup> 각 관사에는 관사의 역할에 따라 翁, 助, 母, 干, 史, 從士 知가 배속되어 있다. 아마도 이들 기술담당자 아래에는 많은 일반장인들이 소속되어 관료와 귀족들이 사용한 직조품, 마구류, 머리빗, 신발류, 악기, 의관류, 금은세공품 등의 생산을 담당하였으리라 추정된다.<sup>39</sup>

35 백제에 다양한 종류의 장인이 있었고 이들이 소속된 관사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백제 위덕왕 35년(588년)에 寺工, 露盤博士, 瓦博士, 畫工을 일본에 파견한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본문 註 21 참조.

36 각 관사에는 무기(兵府), 경성 성곽의 수리(京城周作典), 사찰과 궁전의 건축과 보수 관리(成典), 수레와 마구(乘府), 토목건축(例作府), 선박(船府), 궁정음악에 필요로 되는 악기의 생산(音聲署), 각종 수공업(工匠府), 회화화 단청의 생산(彩典), 물시계의 제조(漏閣典)를 담당하는 장인이 소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희유, 앞의 책, 1989, pp.21-24.

37 병부, 선부, 예작부, 승부 등의 가장 높은 관리의 벼슬 등급은 대아찬(5등급)으로부터 각간(1등급)인데 공장부의 가장 높은 관리는 대나마(10등급)으로부터 급찬(9등급)이기 때문이다. 홍희유, 앞의 책(1989), p.25(『三國史記』 卷第39, 志第8, “工匠府 景德王改爲典祀署 後復故 監一人 神文王二年 置爲自大奈麻至級滄 爲之主書二人 眞德王五年 置位自舍知至奈麻 爲之史四人”). 그러나 경덕왕 때 典祀署(제사를 관장하는 관사)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건축(祀廟) 공장을 통솔하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을유문화사, 1983), p.585; 김동욱, 앞의 책(1993), p.39.

38 『三國史記』 卷第37, 雜誌 8, 職官(중) 내성산하 생산관사; 홍희유, 앞의 책(1989), p.26 <신라의 궁정수공업관청 표>; 박남수, 앞의 책(1996), p.115 <내성산하 생산관사의 관호개혁>을 참고하였다.

39 『三國史記』 卷第33, 色服·車騎·器用·屋舍條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분과 벼슬에 따라 입고 타고 쓰던 각종 일용품품들의 종류와 규격들이 달랐으므로 이에 소용되는 물품의 생산을 내성 산하의 생산관사에 고용된 전문장인들이 담당하였으며, 이들 생산관사는 본피궁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석씨의 본궁인 본피궁이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것을 계기로 수공업을 통제하는 기구로 신문왕 1년(681)에 개편되

표 3 신라 생산관사와 역할

官司名	景德王 改名	役活	定員
남하소궁南下所宮	雜工司	각종 수공업품	세공품 翁1人 助4人
철유전鐵鑪典	築冶房	철기와 유기류의 제작	철물류
조하방朝霞房		고급견직물(조하문)의 직물장	직물 母23人
금전錦典	織錦房	비단을 짜는 곳	"
모전毛典	聚毳房	모직물을 짜는 곳	"
마전麻典	織紡局	의류직조소	" 干1 史8 從舍知4
기전綺典	別錦房	색깔있는 비단의 제조	" 母8人
소전蘇典		누에의 고치를 커서 실을 만드는 곳	" 母6人
염궁染宮		염색을 관장하는 곳	염색 母41人
홍전紅典		염색물 취급	" 母6人
소방전蘇芳典		"	" 母6人
찬염전攢染典		"	" 母6人
폭전曝典			屬縣3
표전漂典		표백을 맡는 곳	母10人
침방針房		침선을 맡는 곳	女子 16人
피전皮典	鞞人房	피혁을 만드는 곳	가죽
추전鞞典		마구에 사용되는 가죽의 가공	"
피타진皮打典	鞞工房	북, 소고 등을 만듦	"
담전鞞典		가죽신을 만드는 곳	"
화전靴典		신류를 만드는 곳	"
타전打典			"
마리진麻履典		초리 등을 만드는 곳	
마진磨典	杼人房	각종 목공품을 만드는 곳	
칠진漆典	飾器房	각종 기구의 칠	
석전席典	奉座局	돗자리 등 자리의 제작	干1人 史2人
쾌개전機概典	机盤局	지팡이, 책상, 밥상의 제작	干1人 史6人
양전楊典	司篋局	광주리, 죽기의 제작	干1人 史6人
와기전瓦器典	陶登局	도기의 제작	干1人 史6人

이 중에서 南下所宮은 경덕왕 때 雜工司로 개명된 일이 있고, 翁 1인과 助 4인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각종 장인들을 모아 잡다한 수공업품들의 생산을 맡아보던 곳으로 인정된다.<sup>40</sup>

어 설치된 것이며, 이는 본피궁에 배치된 處 1人, 私母 1人, 工翁 2人, 典翁 1人, 史 2人 등의 관리들 중 수공업과 관련된 직책을 가진 관원(우, 사모, 공웅)이 배치된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홍희유, 앞의 책(1989), p.31.

<sup>40</sup> 翁은 本彼宮의 工翁, 즉 수공업 관계를 취급하던 관원이며, 助는 보조기술자이다. 홍희유, 앞의 책(1989), p.27.

그리하여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장신구의 예와 같이 신라왕족 이하 지배계층이 착용한 장신구의 제작소라고 추정된다. 『三國遺事』 만불산조의 “그에게 명하여 오색구유를 만들게 하고 또 침완목과 명주, 미옥에 조각하여 산모양을 만들도록 하였다(…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 命工作五色毼毼 又造沈檀木與明珠美玉 爲假山 高丈餘 … 因呼萬佛山 …).”는 기록에 나오는 ‘工’도 ‘南下所宮’으로 보기도 한다.<sup>41</sup>

이처럼 관사명으로 어떤 종류의 장인이 어떻게 소속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있지만,<sup>42</sup>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 국왕과 궁정,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 국가기구에 소속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 3. 장인의 종류와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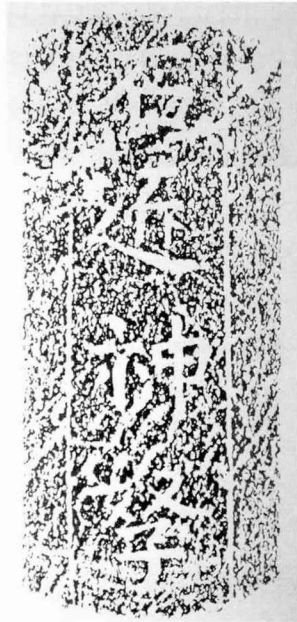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장인은 石工(匠), 木工, 金工(鐵匠), 刻字工, 革工, 織工, 染織工, 陶工, 瓦工, 畫工, 紙工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탑과 불상, 범종 등 모든 장르의 미술품을 만드는 사람을 모두 장인(공장)이라고 하였으므로 전문기술에 따라 세분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백제에서 일본으로 보낸 공인들의 기록<sup>43</sup>과 전문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신라 내성 산하 관사명으로도 장인의 직능별 분류가 가능하다. 경문왕7년(867)에 조영된 鷲棲寺石塔의 경우 ‘石匠神孛’라 하여 장인의 전문기술 분야에서 나온 명칭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sup>12</sup>.

또한 신분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의 가문에 소속된 장인(私匠), 국가에 소속된 장인(官匠), 승려장인(僧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상원사종과 황룡사종의 조영에 참여한 조남택과 이상택의 장인은 사장이면서 관등이 있는 양성적인 장인이 있었다. 이는 진골귀족세력이 신라사회에서 차지하는 강한 정치, 경제적 기반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41 박남수, 앞의 책(1996), p.112.

42 관사의 정확한 역할은 기록으로 알 수 없고 관사의 명칭에 근거한 해석이므로 異說이 있을 수 있다. 백제의 주부를 직조수공업 담당하는 관사(홍희유, 앞의 책, 1989, p.20) 또는 재무담당 관사(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83)라 하며, 신라의 彩典을 후대의 도화원처럼 繪事를 관장했던 기구(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또는 관복의 염색이나 건물의 채색 등에 필요한 염료의 일을 관장한다는(박남수, 앞의 책, 1996) 것이 그러한 예이다.

43 본문 註 21 참조.



도 12 취서사 석탑 출토 납석제사리호, 사리호 저면 탁본, 통일신라, 867년, 국립중앙박물관

이들 장인의 신분은 5두품(나마)에서 4두품(대사) 등 대체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 특히 성덕대왕신종의 주종에서와 같이 대박사, 차박사의 벼슬을 가진 6두품 지배계급출신의 장인이 존재한 것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장인의 높은 신분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탑의 조영에 관한 기록을 새긴 사리구의 명문에 장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이들에 대한 배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황룡사9층목탑을 조영한 아버지 예물로 초청되어 지배계급출신으로 추정되며, 백제 위덕왕35년(588)에 일본에 파견된 노반박사 白味淳의 벼슬등급이 백제의 16등급 중 7등급에 속하는 將德임은 삼국시대 장인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예로 삼을 수 있다.

삼국과 통일신라 장인의 삼국·통일신라의 장인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음은 승장으로도 확인된다. 鑄鐘에 가담한 승장 이외에도 수행 정진하면서 수공업기술을 구사한 승려장인의 예로는 단연 釋良志를 꼽을 수 있다.<sup>45</sup>

<sup>44</sup> 皇福寺3層石塔 舍利函(706) '匠季生闕溫' 桐華寺 毘盧巖3層石塔 舍利壺(863년) '匠梵覺' 鷲棲寺石塔 舍利壺(867) 石匠 神孛 등이 있다. <표 2> 참조.

양지는 『三國遺事』(卷第4, 義解 第5, 良志使錫條)에 “조상과 고향이 미상하다고(未詳祖考鄉邑)”되어 있어 학자에 따라 대조각가, 탁월한 명필가, 저명한 공예가로 불리어지는 등 많은 이설이 있는 인물이나, 동시대인들로부터 받은 존경만은 부정할 수 없다.<sup>46</sup> 양지와 같은 덕 높은 승려가 장인이었다는 것은 당시 승려들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재주를 구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라 여겨진다.<sup>47</sup>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스님들이 장인의 역할을 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은 것은 불교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sup>48</sup>

여하튼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장인의 위상은 士農工商이 천명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절대화된 시대와는 분명히 구별되며, 사회적 위상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사상 이외에도 야장업 출신인 탈해왕 설화나 학자인 强首가 장인집안과 혼인이 가능하였던 고대 기록으로도 이해된다.<sup>49</sup>

#### IV. 맺음말

匠人の 명칭은 고구려와 백제의 미술품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신라와 통일신라시대 미술

<sup>45</sup> 승려장인으로는 고구려 승 曇徴(본문의 註 21 『日本書紀』卷22, 堆古天皇 18年3月條)과 흥륜사 벽화를 그린 신라 말의 靖和, 弘繼(『三國遺事』卷第3, 塔像 4, 興輪寺壁畫普賢條)가 손꼽힌다.

<sup>46</sup> 양지를 바치로 해석한 양주동의 설과 “旁通雜響”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토기나 기와, 금공예품까지도 다루던 집안출신(문명대, 앞의 논문, 1993·2001)으로 보거나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사천왕사소조천왕상, 석장사소조사천왕상, 감은사금동사천왕상 등에서 서역양식과 唐 양식이 함께 있는 점을 들어 서역인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신라로 귀화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강우방, 앞의 논문, 1991). 젊은 시절 분명 서역을 오랫동안 여행하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불교미술에 대한 수련을 쌓은 인물일 가능성이 강하다는 중간적인 견해도 있다(장충식, 앞의 논문, 1987).

<sup>47</sup> 문무왕 때 신발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수행하였다는 승려장인 팽덕과 엄장의 예가 있다. 『三國遺事』卷第 5, 感通 第7, 光德 嚴莊條.

<sup>48</sup> 진덕왕 때 신라에 유입된 瑜伽師地論의 배포를 예로 삼는다. 승려들이 보살이 되기 위하여 五明-工巧明(工業明)·因明·聲明·內明·醫明-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온갖 세간의 공교한 일에 밝아야 한다는 공교명이 포함되어 있음이 근거가 된다. 工巧明은 “보살이 배풀어야 할 만한 때가 아닐 때에는 이전부터 익힌 곳곳의 공교업처에서 제작의 의도를 행하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재보를 만들어 모아 여러 중생에게 배풀라”는 것이다(又諸菩薩 若現 有加施財物 先所 習彼彼世間工巧業處作意 現前少用功力 多集財寶 施諸衆生). 『高麗大藏經』15, 瑜伽師地論 卷第39(동국대학교 출판 고려대장경); 박남수, 「신라 승장의 활동과 그 사상적 기반」, 『한국고대사 연구』 10(1995) 참조.

<sup>49</sup> 『三國史記』卷第46, 列傳6, 强首條.

품의 명문과 문헌기록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匠人은 工匠, 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工藝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工藝란 금속이나 나무, 돌과 같은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미술품을 조영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장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匠人은 실용공예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현대적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불탑(목탑, 석탑), 선사탑, 불상, 범종, 영정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통칭된다.

현존하는 공예품 중 명문과 문헌기록에서 '匠人'의 명칭과 '匠人'의 이름(집단)이 분명한 몇 예에서 삼국시대에 장인의 위계가 이미 수립되어 있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관직과 관등을 부여받아 지배계층에 속하는 관장이 실재하였으며, 귀족가문들도 개인공방을 관리하면서 유능한 장인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라 35금입택으로 대표되는 진골귀족가문이 공방을 운영하였음은 상원사종과 황룡사종의 주중에 참여한 照南宅과 里上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개인가문에 소속된 장인(사장)들은 국가로부터 관등을 받은 양성적인 존재였음이 주목된다.

국가조직에 관한 검토 결과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장인들은 국가의 관사에 소속되어 조영활동·시원건축, 불탑과 불상, 범종의 조영 등에 참여하였으며, 국가 또는 왕실과 귀족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수급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장인들이 국가로부터 관등을 부여받은 경우 6두품, 5두품에서 4두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장인의 사회적 지위는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阿非를 비롯한 지배계급 출신의 장인의 예와 특히 불법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장인의 역할을 수행한 僧匠의 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인의 지위는 사농공상이 천명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절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대국가 형성기 각종 문물의 정비를 위하여 장인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분화된 형태로 존재하던 장인들이 국가에 새롭게 편제되었으며, 불교공인 후 불교사상에서 수행의 한 방편으로 스님들이 장인의 역할을 중시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삼국과 통일신라대의 공예품은 다른 어느 시대의 공예품보다도 국가적·종교적·상징성이 강하였다는 역추론도 가능하다.

\* 주제어(key words): 工藝(Craft), 匠人(Jangin), 工匠·匠(Gongjang·Jang, Craftsman)

ABSTRACT

## Craftsman in Ancient Three Kingdoms Period and Unified Silla Dynasty

Lee Young-hee\*

The researches on artists have been extremely deficient in Korean art history studies. Although craft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evolution of human culture among various genres of art, there are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ideas, formative beauty, artists included in crafts because crafts more emphasized practicality as well as beauty compared with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Because craftsman regards sympathy by many people rather than subjective beauty as of greater importance in manufacturing crafts which stress the practicality, the tradition is mo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rtist. In this context, 'non-individualism', i.e., 'anonymity' is includ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raft and the uniqueness of an artist is rarely appeared compared with other genres of art. In addition, approach is not easy differently from 'study on artist' which has the modern concept because craft emphasizes 'public nature' about a certain group rather than 'who' (individualism) due to its 'anonymity'.

The historical existence of craftsmen, however, cannot be overlooked, because there are many craft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 period and the Unified Silla dynasty

---

\*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among the existing Korean arts and they were the performances by the traditional factor, the interaction with the advanced culture, and the techniques of craftsmen.

The title of Jangin cannot be found in the arts of Koguryo and Paekche.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based on the inscriptions and literatures in the Three Korean Kingdoms Period and the Unified Silla Period, Jangin (匠人) was used in same senses of Gongjang (工匠) and Jang (匠), and was defined as the workman engaged in the crafts.

The concept of craft is differentiated from architecture, painting, and sculpture, and the concept of craftsman is captured in broader senses than modern senses where craftsman is a workman engaged in practical crafts. Therefore, craftsman are meant as a manufacturer of wooden pagoda, stone pagoda, stupa, statues, bronze bells, portraits without any classification of genres of modern senses.

Based on the inscriptions and literatures of the existing crafts of which the titles and names of craftsmen are clear, it is recognized that the hierarchy of craftsmen was already established in the Three Korean Kingdoms period, and there existed the official craftsmen who belonged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dominant class endowed with official grade and social position, and the noble families controlled the excellent craftsmen operating the private crafts studio in the Unified Silla period. Especially, it is notable that individual craftsmen belonged to the private families were also endowed with the official grades from the nation.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craftsmen in the Three Korean Kingdoms and the Unified Silla periods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construction activities engaged in private families or government offices, and took charges of the supply of commodities demanded by royal families and the nobles.

Most of them were endowed with the position between the 4th official class and the 6th official class, thus their social position seemed to be higher than that of Koryo Period and Chosun dynasty. This means that the position of a craftsman was not determined by his blood as in the case of the craftsmen from the dominant class like Abi and the priest craftsmen who played roles in crafts as a way to realize the Buddhism.

It seemed to be due to the re-allocation of craftsmen who had existed in the diversified forms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by emphasizing the role of craftsmen during

the cultural and physical establishment processes and wars in the formation period of ancient countries. The role of priests as a way of self-discipline also affected this after the official admission of Buddhism.